

야구대표팀 '에이스' 양현종

"단기전 실투 줄이는게 중요"

11월1일 푸에르토리코전 선발 등판...2이닝 예정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참가를 앞둔 야구 국가대표팀 양현종이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하고 있다.

한국 야구대표팀의 에이스 양현종(KIA)이 국가대표전 프리미어12에서 실투를 줄이고 이어

터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 대비해 훈련을 진행했다.

양현종은 대표팀 합류 후 3번째 불펜 피칭을 이날 실시했다. 양현종은 총 53개의 공을 던지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양현종은 내달 1일 푸에르토리코와의 1차 평가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양현종은 "코치님께서 볼 개수와 상관 없이 2이닝을 던질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시즌 후 오랜 기간 실투를 뛰지 못하다가 생소한 외국 타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양현종에게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양현종은 "잘 쉬었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재 몸상태는 충분히 100개 이상의 공을 던질 수 있을 정도"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하지만 단기전이기에 한 이닝씩 질러서 던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뒤에 좋은 투수가 많다. 뒤에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양현종은 "단기전이기에 공 1개로 승부가 갈리기도 한다"며 "강한 볼도 중요하지만 실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현종은 포수 양의지와 호흡에 대해서는 "의지 형의 리더를 믿고 던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뢰를 보였다.

등판하는 투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표팀은 28일 오후 3시30분부

MLB.com "사이영상급 류현진, 시장을 테스트 할 것"

"좋은 성적 거둬 FA시장서 많은 주목 받을 것" 전망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류현진(32)의 거취에 대해 조명했다.

MLB.com은 29일(한국시간) '사이영상급 2019시즌을 보낸 류현진이 시장을 테스트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둔 류현진이 FA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14승5패에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인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했다. MLB.com은 이 같은 류현진의 성적을 소개하며 "캐리어하이 시즌을 보낸 류현진은 사이영상 후보로도 거론됐으며 이에 스토브리그에서 거처있는 선

발투수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의 에이전트가 스콧 보라스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라스는 구단들로부터 '악마의 에이전트'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협상력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에이전트다.

MLB.com은 "보라스는 이번달 초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류현진의 내년 나이가 33세이지만,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은 그의 팔은 26세, 27세 정도라고 주장했다"며 보라스의 고객이라는 것도 FA 류현진의 강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이미 다저스의 켈리파이오퍼를 받아들인 것 또한 짚었다. 류현진은 지난해 FA 자격을 획득,

다저스의 켈리파이오퍼를 수락해 1년 간 더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켈리파이오퍼란 구단이 FA 선수에게 제시하는 1년 계약안이다. 연봉 협상 없이 메이저리그 당해 연봉 순위 상위 125명의 연봉 평균치가 1년 계약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올 시즌 연봉 1790만달러(약 211억원)를 받았다.

켈리파이오퍼는 원 소속구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원 소속구단으로부터 켈리파이오퍼를 제시 받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신인 지명권 한 장을 원 소속구단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켈리파이오퍼는 해당 선수에게 한 번만 제안할 수 있다.

MLB.com은 "류현진은 이미 지난해 켈리파이오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다저스 이외의 팀이 드래프트 지명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류현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MLB.com은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와 다저스를 좋아하지만 다른 구단으로부터 더 유리한 제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저스가 타 구단과 비슷한 조건을 류현진에게 제안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류현진이 다저스에 잔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뉴스1

배영수 결국 유니폼 벗는다...김태형 감독에 '은퇴 의사 전달'

두산 베어스의 통합 우승에 마침표를 찍은 '베테랑 우완' 배영수(38)가 결국 은퇴한다.

두산 구단은 29일 "배영수 선수가 김태형 감독에게 전화해 은퇴 의사를 전달했다"며 "아직 배영수 선수의 거취는 정해진 것이 없다. 구단이 조만간 선수를 직접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영수는 2000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1차지명을 받고 데뷔, 올 시즌까지 20년 동안 마운드를 지켰다. 프로 통산 138승122패 3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4.46을 기록했다.

2015년 FA 자격을 얻어 한화로 이적한 뒤 올 시즌을 앞두고는 두산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프로 세 번째 유니폼이 배영수에게

는 현역 마지막 유니폼이 됐다.

배영수는 한국시리즈 최고령(38세5개월22일) 세이브 최다 등판(25경기)이라는 두 가지 신기록도 수립했다. 또한 '까치' 김정수와 함께 한국시리즈 최다 우승(8회) 타이 기록도 세웠다.

한국시리즈 우승 후 김태형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배영수에게 지도자 제의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배영수도 이를 인정했다.

배영수는 우승 후 "지금까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한국시리즈 마지막 투수였는데, 그럴 수 있게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다"며 일주일 정도 고민 후 은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김태형 두산 베어스 감독이 우승 확정 후 배영수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신트트라위던 감독 "이승우, 적응기...과거보단 현재에 투자해야"

지난 8월 말 벨기에 무대로 이적해 두 달째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승우(21·신트트라위던)에게 감독이 "과거보단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트트라위던은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2019-20시즌 벨기에 퍼스트 디비전A 12라운드 헨트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마르크 브라이스 신트트라위던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승우는 여전히 적응기에 있다"고 전한 뒤 "과거에만 쫓으면 안 된다. 지금을 살기 위해 자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는 지난 8월30일 에이스 등번호 10번을 받고 입단했지만 8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되며 두 달째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벨기에 언론은 이승우의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이승우는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